

인간의 감정과 관념에 따른 형상화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일반대학원
M2013539 송가희

1. 머리글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2. 몸글

- 1) 감정과 관념 정의
- 2) 미술사적 배경
 - 후기인상주의
 - 표현주의
 - 초현실주의
 - 추상표현주의
- 3) 참고 작가
 - 에드바르트 뭉크
 - 프리다칼로
 - 안토니오 고클리

3. 연구작업

4. 맺음글

- 1) 발전 방향

5. 참고 자료

1.연구 배경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위안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처절한 감정을 음악을 통해 내뿜었고, 어두운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소통이었다. 비슷한 감정에 공감을 하였고, 안으로 삼키기만 했던 감정을 나대신 세상에 표출해 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공예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작업에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기쁨과 환희처럼 밝은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절망과 고독, 외로움처럼 누군가의 따스함이 필요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은 더욱 짙어졌다.

추상의 개념을 구상으로 나타내기 까지 수없이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모든 걸 직시하여 끌어내는 과정에서 완전하지 못 한 자아는 비로소 총만해진다.

2.연구목적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도 그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모호한 감정은 더욱 교차되며 우리는 정의 내려진 단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느끼곤 한다. 이럴 때 음악, 사진, 그림, 글로 전달하는 방법을 대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나 또한 감정의 형상화를 매개로 모호함을 분명함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감정에 국한시키지 않고 관념으로 발전시켜 예술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3.조사내용

1) 감정과 관념의 정의

· 감정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 한다. 감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보면 화학원소들이 그렇듯이 감정 기저에는 기본 혹은 일차감정이 있고, 이들이 혼합되면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기본 감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기본 감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인류 보편적일 것, 생존에 유용할 것, 생애 초기에 나타날 것, 얼굴 표정으로 구분 가능할 것, 생리적 반응을 보일 것 등이 있다. 특히 미국의 심리학자 에크만(P. Ekman)은 얼굴 표정을 기준으로 공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 등의 여섯 가지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했다. 기본 감정이라는 개념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여섯 가지 기본 정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한다. 다윈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듯 감정도 진화의 결과로, 다른 동물들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해서 인간관계는 더욱 명료해지고, 타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정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 알아주는 것으로 감정을 객관화시킨다. 감정이 객관화되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이다. 감정 표현을 하고 나면 멀리 떨어진 남의 일처럼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수용이 된다.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마음을 보여줄 때 관계가 투명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표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와 관계를 위한 것이다.¹⁾

· 관념

관념은 쉽게 말해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 생각이다.

2) 미술사적 배경

내면적 표현은 미술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 후기 인상주의

보이는 세계보다 관념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그리려는 욕구는 1885년경부터 문학과 미술에서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한 화가들 중에서 특히, 고흐와 고갱은 미술사에서 후기인상주의 화가들로 불리기도 한다. 후기인상주의는 통일된 하나의 그룹을 이루지 않았으며, 명칭 자체도 미술의 '기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시했다면 후기인상주의는 그 이면의 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관의 표현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선에 의한 형태를 강조하고 색채는 단순화하고 평면화 시켰다.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더 이상 자연을 모방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세계의 표출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²⁾

(2) 표현주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미술인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으로 미술에서 자연의 재현은 부차적이며 마음의 상태가 그림의 주제가 되고 있다.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가능성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성(구도)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었으며, 왜곡은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①야수파 - 프랑스의 야수파는 고흐와 고갱의 영향을 받았으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강렬하게 사용하고 형태를 주관적으로 변형하였다.

②다리파 - 독일의 다리파는 "그들의 작품이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구실을 하리라."는 믿음으로 1905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결성되었다. 극도로 왜곡된 형태와 색채의 부조화를 통해 격렬하고 고뇌에 가득 찬 작품을 만들었다.. 주로 목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는데, 목판의 극적인 흑백 대조, 거친 형태, 톱니 모양 선들은 암울한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③청기화파 -독일의 청기사파는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독특한 형상세계를

1) 문기숙 '도덕성 발달을 위한 감정교육의 의미와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2005

2) 김옥렬 '현대미술의 표정과 교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또 미술에 정신적 가치를 심으려고 그림을 단순화하고 추상적으로 그렸다.

(3) 초현실주의

환상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미술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한다. 초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애썼으며, 현실을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서 논리적이면서 실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려 했던 바, 이것은 적대적인 혹은 추월적인 현실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더불어 내면 감정 표현이 중시되었고,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꿈과 정신의 세계에서 현실이 아닌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지향하면서 환상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의식에 속박되지 않은 상상력과 인간 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³⁾

(4) 추상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는 한마디로 작가의 격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예술이다. 20세기초에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추상미술인 몬드리안과 같은 기하학적, 구성적, 지적인 경향이나 말레비치와 같은 신비주의적, 금욕적 경향 그리고 칸딘스키와 같은 본능적, 표현적, 경향 등도 각자의 내적 필요성에 의해 주어진 서로 다른 성향의 추상미술이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존적 모습보다는 변형과 왜곡을 통해 내적인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분위기에서의 내적지향인 것이다. 현대 미술사를 살펴보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내면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인물화를 많이 그리곤 했다. 자화상이나 초상화와 같은 인물화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내면을 표현해왔던 것이다.⁴⁾

4. 작가 조사

1) 에드바르트 뭉크 Edvard Mu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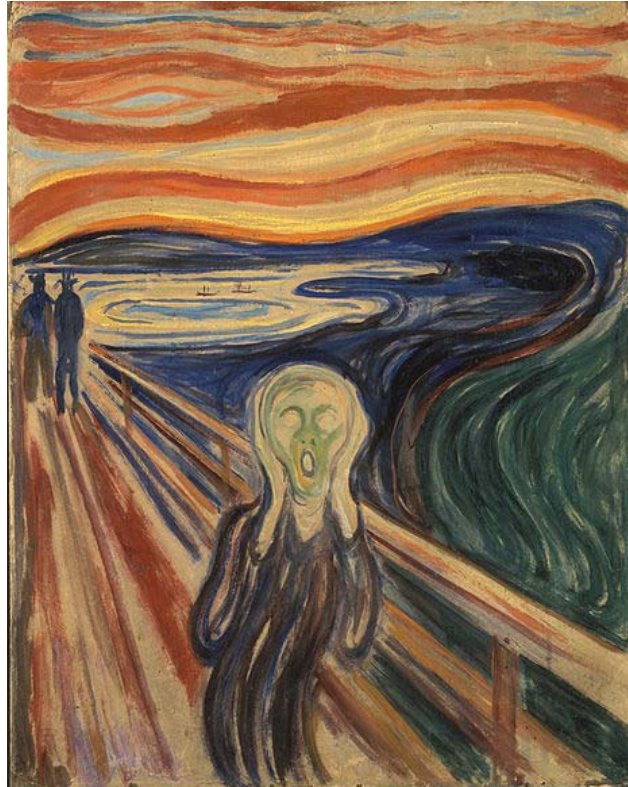
노르웨이태생의 뭉크는 불안, 공포, 애정, 증오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표현한 화가로서 표현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자신의 강박관념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한 뭉크의 작품은 특히 독일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절규]

1893년 그려진 [절규]는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는 뭉크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을 그린 것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다. 뭉크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어 입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뜬 채 경악하는 자신과 현대인의 불안한 모습을 담고 있다.

3) 김옥렬 '현대미술의 표정과 교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4) 김옥렬 '현대미술의 표정과 교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1910 830x 660 ,oslo

[질투]

"내 신경이 이런 상황을 견뎌 내다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내 나는 그녀의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 만약 눈치를 챈다면 그는 처음에 파랗게 질렸다가 나중에는 활화산처럼 분노를 폭발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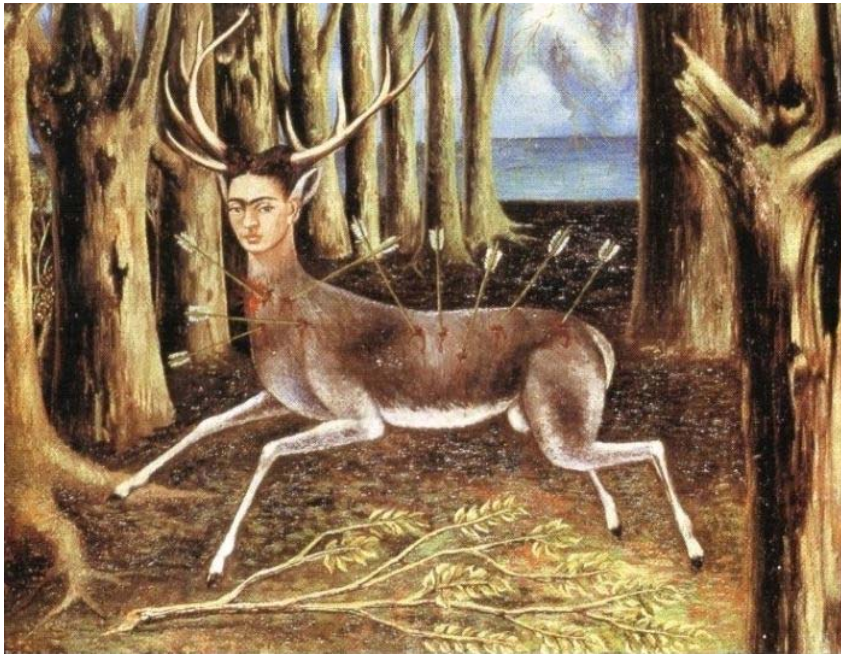
2)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멕시코의 여류 화가.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으로 유명해졌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프리다의 삶은 매우 연극적이었고 항상 여사제처럼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으나 남성에 의해 여성이 억압되는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는 20세기 여성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남편 리베라 때문에 겪게 된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특히 자화상이 많다.

[상처 입은 사슴]

울창하고 뾰뾰한 숲은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이고 공포에 가득한 감정을 표현했다. 여러 개의 화살은 사슴의 몸을 관통해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화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다. 그리고 사슴은 그녀의 상처받은 오른발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프리다 칼로의 무기력함이나 수술 실패로 인한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1946, 224x300

3) 안토니오 고클리 Antony Gormley

세계적 작가들 중 가장 철학적이란 조각가 안토니오 고클리의 조각과 설치 작업은 영혼을 흔드는 소통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클리는 자신의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자신의 몸을 석고로 떠서 제작했다. 그렇게 탄생된 다수의 인간형상을 장소적 특성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공간적 체험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감각적 미술에 질려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피적인 자극이 아니다. 오늘날 미술은 머리로 구사하는 수사학은 지극히 발달해 있지만, 몸과 몸의 인간적 관계는 사라져 가고 있다. 해로운 미술에서 요구 되는 것은 친밀성의 소통이다."



5. 연구작품

1) 샤콘느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으로 대표되기도 하는 조반니 비탈리의 '샤콘느'를 비가 오는 어느 날 듣게 되었다. 처연하고 쓸쓸한 한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높은 고층 옥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용도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함이다. 그림1)

2) 포효

안에는 분노가 있다. 멀쩡하다가도 가끔 의지와 상관없이 내적 분노가 일어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우레로 천지가 갈라지고 모든 걸 삼킬 듯 폭풍이 몰아친다. 제어해야 하는 파괴적 욕구에 휩싸이던 시점에 생각해 낸 작업이다. 그 감정은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정말 울부짖고 싶음이다. 그림2)

3) 길 위에서

앉고 싶지만 다리가 부러져 앉을 수 없는 의자, 보고 싶지만 렌즈가 깨져 볼 수 없는 안경처럼 간절하지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때가 있었다. 갈 길은 먼데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생각으로 자포자기한 자신을 의자로 의인화 시켰다. 그림3)



샤콘느 그림1)



그림2) 포효

길 위에서 그림3)



그림4) 상실



4) 상실

애니메이션 '별을 쫓는 아이'를 보고서 상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꼭 한 가지 이상의 상실을 겪게 된다. 즉 상실을 안고 태어난다. 탄생은 축복이지만 인과관계처럼 상실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림4)

5) 빈집

2학기 과제로 기형도 '빈집' 시를 읽고, 거기서 느꼈던 분위기, 감정을 담아보고 싶었다. 그림5)

6) 양면성

이 역시 2학기 과제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양면성이 존재한다. 허나 공격적 내면은 상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까지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작업하였다. 그림6)



빈집 그림5)



그림6) 양면성

6. 발전 방향

공예분야가 아니고서도 작가의 의도와 철학적 생각이 잘 반영되어지는 작품을 전시나 사진을 통해 접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걸 느낀다. 누구나 쉽게 인지하는 감정 혹은 개인적 이야기는 생각의 발전에 따라 예측하기 쉬워 지루함을 주게 되고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뿐더러 자칫 민망함을 안긴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더 재미를 느끼며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작업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아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 자료

도서

김옥렬 '현대미술의 표정과 교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석사논문

'도덕성 발달을 위한 감정교육의 의미와 방법 연구' 문기숙 2005 연세대학교

'인간의 감정표현을 시각화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김현주 2008 홍대학교

'인간의 감정에 관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최재은 2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간의 감정표현을 상징화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심은정 2013 신대학교